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9(1): 125~134, 2008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일반학생의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박 옥 임 · 김 현 숙* · 문 희** · 김 진 희***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광양보건대학 간호과**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The Acceptance Attitude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Normal Students Getting Inclusive Education and Their Parents

- Focused on Differences by Gender and Grade -
Park, Ok Im · Kim, Hyun Sook · Moon, Hee ** · Kim, Jin Hee ***
Division of Social Welfa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Social Welfare Research Institut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Dep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Gwangyang, Korea**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termining attitude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getting inclusive education and their parent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provide basic data for desirable inclusive education.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3 elementary schools and 2 middle schools and the participants were 117 elementary students, 288 middle students, 98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156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ree areas of attitude were observed the cognitive area, the affective-behavioral area, and the area of perceived effect on learning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ANOVA. The results indicat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 by gender. Second,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students had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their parent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en the affective-behavioral area was analyzed, whereas the opposite was true when the area of perceived effect on learning area was analyzed.

Key words: inclusive education, acceptance attitudes, general students, disabled students

접수일: 2008년 1월 31일 채택일: 2008년 3월 13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82-61-750-3671 Fax: 82-61-750-3670
e-mail: parkok@sunchon.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이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 62조 6항). 이 법을 통해 특별한 요구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통합교육의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완전통합의 개념보다 주류화의 개념에 근접해 있다(전영숙 2000).

통합교육의 정의는 초기에는 장애학생이 일반또래 학생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교육의 목적은 일반 교육과정에 장애학생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장애학생의 표찰효과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박병진 2001).

그러나 통합교육이 제대로 정착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통합 절차에 대한 이해결여,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혜택 미비, 장애아 특성, 통합교사를 위한 지원 서비스와 기술적인 보조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Yanito 1987). 또한 저해요인을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배경으로는 지능 및 학업, 성격 및 심리, 행동, 사회성으로, 환경적 배경은 인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설명했다. 인적배경에 교사, 일반학생, 학부모, 학교관리자 등으로 나누었다. 일반학생 배경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 및 이해부족, 장애학생에 대한 지나친 동정과 보호 혹은 장애아를 특별히 취급하거나 학대의 대상으로 대하는 부정적 태도,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관심이나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거부감을 들고 있다. 학부모 배경으로 장애학생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통합교육에의 관심부족,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학부모의 편견과 이기심, 그리고 그릇된 장애자에 대한 관점, 장애학생 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와의 지속적 보완과 협력관계의 형성 실패를 들고 있

다(정남연 2006).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장애학생 부모와 일반학생 부모,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등의 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수적·행정적·재정적 요인 및 지역사회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화롭게 구성되어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통합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남윤석 1996). 곽지영(1996)의 연구에서는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학교 내에서의 장애학생과의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학교에서의 통합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지적 태도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많을수록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장애학생이 같은 반에 있을 때, 인지적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고 하였다. 행동적 태도 역시 접촉정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장애아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결과(김진경 1996; 김용주 1998; 박찬명 2001; 이미옥 2000; 유경희 2001)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통합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며, 일반학생과 학부모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통합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반학생-학부모간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의 교육을 일반교육 속에 마련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하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아동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와 함께 모든 아동이 자신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이명일 2005).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의 정의는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이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 62조 6항). 이 법을 통해 특별한 요구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통합교육의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전영숙 2000).

통합교육의 효과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장애학생에게 통합교육의 효과는 장애학생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이들이 보이는 적절하고도 나이에 맞는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hea & Bauer 1994). 특히 의사소통과 사회성 영역의 발달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또래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장애학생들이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결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선태 1998).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에게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기타 발달영역 및 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Odom 1990). 최근에는 통합교육에서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Kaufman 등(1985)의 연구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은 학업적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경도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들과 유사한 학업적 성취를 보인다고 하였다(Truesdell 와 Abramson, 1992). Madden와 Slavin(1983)

에 의하면, 학업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장애학생들은 개별화교육 프로그램과 잘 정교화된 자료실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서 일반학급에서도 충분한 학문적, 행동적, 사회·정서적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일반학생에게 통합교육의 효과는 통합교육을 통하여 일반학생들은 편안함과 자각이 증가하여 장애학생과 자신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며, 자아개념, 개인의 원칙이 바뀌어, 친근한 우정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장애학생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동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Esposito 1983). Peltier(1997)는 비록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만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통합교육이 일반학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 일반학생과 그들의 부모, 장애학생과 장애학생부모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철저한 프로그램이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충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장애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 효과적인 통합의 필수적인 조건인데 반해, 일반학생에게 장애학생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통합된 환경에서도 일반학생에게 빈번하게 거부되고 있으며, 일반학생은 학습이나 사회적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장애학생에게 언어적 학대를 가하는 경향이 있다(정선희 1992). 이와 같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단순한 물리적 접촉 자체가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부정적인 태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해 갖는 오명화나 첫인상은 장애학생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이전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미래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결정짓는다. 이 단계에서 장애학생에게 단조로운 시

각을 갖거나, 편견이나 경직된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혹은 반대로 자신과의 차이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윤혜경 1991).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성별은 정신지체 학생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의 독립변인이 되고 있다. 교육가능급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일반학급 아동들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성별 효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수용적이라는 결과가 있다. Siperstern과 Budoff(1980)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정상 외모이며 하위능력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학생보다 의미있게 우호적이었고, 남학생들이 극히 부정적인데 비해 중립적이었다. 그러나 신체장애와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약간 상이함도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신체장애나 수행수준에 관계없이 대상 아동에 대해 남학생보다 부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반학급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성별의 차이는 선행연구에 비추어볼 때 일관적이지 않다.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의 근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강화되는 아동기 초기의 부모에 의한 양육태도에서부터 발견된다. 이것이 아동이 학령기가 되었을 때,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만을 선호하도록 작용하여 결국 장애아동을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태도에 대한 적절한 교육 없이는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초등학교 교실은 태도 형성을 위해 태도 교육을 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이다(김광웅 1990). 즉 초등학교 시기는 가정에서 조성된 태도가 단순히 지속되지 않고, 어떤 요인에 의해 기준의 태도가 강화를 받거나 변화되도록 하여 각각 나름대로의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연령 증가에 따른 장애에 대한 인식 시기는 학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4세경에 시작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은주(1995)에 의하면 연령 간에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10, 11, 12세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수용적이었다. 그러나 Miller, Armstrong과 Hagan은 3학

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6주간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교육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3학년 아동이 5학년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이은주 1995, 재인용). 그리고 또, 장애 아동에 대해 고학년일수록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차재화 2005).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의 근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강화되는 아동기 초기의 부모에 의한 양육 태도에서부터 발견된다. 이것이 아동이 학령기가 되었을 때, 일반학생과의 상호 작용만을 선호하도록 작용하여 결국 장애학생을 거부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태도에 대한 적절한 교육 없이는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초등학교 교실은 태도 형성을 위해 태도 교육을 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소이다(김광웅 1990). 즉 초등학교 시기는 가정에서 조성된 태도가 단순히 지속되지 않고, 어떤 요인에 의해 기준의 태도가 강화를 받거나 변화되기도 하여, 각각 나름대로의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3. 일반학생 학부모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

통합교육 현장에서 흔히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일반자녀를 둔 부모들의 시각이다. 많은 부모들이 장애학생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자녀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본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학업성취나 발달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도 생각하여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한다. 한편, 장애학생의 부모도 때로는 통합교육 현장을 꺼린다. 그것은 우선, 자신의 자녀가 그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정서적인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자녀가 보다 질 높은 치료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통합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각종 발달이나 행동 및 학습능력이 퇴보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 부모의 위와 같은

편견은 통합교육 운영 자체에도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자신의 자녀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의 악순환은 통합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모가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일반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장애학생과 잘 어울리도록 독려하며,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행정 및 제도적인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 통합교육이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에서 일반학생의 부모들이 오히려 통합교육을 강조하여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실은 그것을 입증한다(김성애 등 1996). 뿐만 아니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기 자녀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생 및 부모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제도와 법적인 변화 및 행정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한국통합교육학회 200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S시 및 Y시 소재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 까지 3주간 실시하였고, 설문지 참여 인원은 총 685명이었으나 불성실한 답변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는 26부를 제외한 초등학생 117명 중학생 288명으로 총 405명이며, 부모는 초등학생 학부모가 98명, 중학생 학부모가 156명으로 총 254명을 선정하였다.

표집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의 표본선정은 연구자가 임의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완전통합과 부분통합의 학생 수를 비교적 동수로 선정하려 하였다. 통합교육은 완전통합교육과 부분통합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완전통합교육은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하루의 일과를 같이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부분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서 생활하다가 특수학급 수업 후에는 일반학급으로 돌아가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과공부를 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완전통합을 받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부분통합을 받고 있는 학생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부분통합을 받고 있는 학생이 더 많이 선정되었다. 부모의 표본선정은 학생 표본의 학부모로 선정해서 학생 표본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직접 설문을 받아오도록 했다.

2. 연구도구

선행연구들(곽지영 1996; 최성규 2004; 윤현희 2005)을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만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수정하였다. 본 조사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척도는 장애학생에 대한 관념적 지각을 보여주는 인지적 수용태도,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적, 행동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정서·행동적 수용태도, 장애학생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학습 성적과 관련되는 내용을 측정하는 학습적 수용태도로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SAS 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사용하였다.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는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학생 전체 응답자 중 216명(53.3%)이 남학생이며, 189명(46.6%)이 여학생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전체의 28.8%를 차지하였고, 중학교 1학년이 40%, 2학년이 31.1%로 중학생이 전체의 71.1%를 차지하여, 중학생의 비율이 훨씬 많았다. 통합 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Variables		N	%
sex	male	216	53.3
	female	189	46.6
Student grade levels	elementary school	117	28.9
	middle school	288	71.1
	inclusive education	100	24.6
children's grade	full part	305	75.3
	elementary school	98	38.5
	middle school	156	61.4
Parents age	under 40	126	49.5
	41-50	121	47.6
	51 over	7	2.6
I know the presence of a child with disabilities in my child's classroom.			
yes	171	67.3	
no	83	32.6	

태에서는 완전통합 형태를 취하는 학생이 100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부분통합을 취하는 학생이 305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하여 부분통합을 취하는 학생 수가 완전통합을 취하는 학생 수 보다 약 3배에 가까웠다.

부모 응답자 중 초등학생 학부모가 98명으로 전체의 38.5%, 중학생 학부모가 156명으로 61.4%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세 이상 50세 이하가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자녀학급에 장애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례수가 171명(67.3%), 그리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례수가 83명(32.6%)으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성별에 따른 장애학생 수용태도는 Table 2와 같다. 그 결과 세 영역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영옥(2005)은 성별 장애 수용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

이라고 하였으며 김종삼(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애 수용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최숙자(2004)는 통합학급의 장애 학생에 대한 중학교 일반학생의 성별에 따른 수용태도는 모든 영역(교우관계, 생활태도, 학습활동, 전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전체와 학습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장애학생의 수용태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이양섭 1995; 이은주 1995; 최은자 2002). 일반학생에게 있어 장애학생의 수용태도는 성별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타 행동과의 관계로 인해 그 효과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Table 2. Difference in normal students attitude according to sex

	Student		t	p
	Male	Female		
Cognitive attitudes	2.63(0.74)	2.60(0.71)	0.19	0.6668
Affective-behavioral attitudes	2.96(0.64)	3.02(0.64)	1.05	0.3067
Learning attitudes	2.41(0.80)	2.40(0.75)	0.01	0.9285

2. 학년에 따른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학년에 따른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는 3가지 하위영역 즉, 인지적 수용태도, 정서·행동적 수용태도, 학습적 수용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있어 인지적 영역에서 초등학생이 2.40, 중학생이 2.71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해 인지적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영역에서도 초등학생이 2.78, 중학생이 3.07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정서·

행동적 수용태도 영역에서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 수용태도 영역에서도 초등학생이 2.23, 중학생이 2.48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학습적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년별 수용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등학생의 모든 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수용태도영역에서 6학년이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초등학생과는 다르게 학년 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에 따라 일반학생의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송말순(2003)의 연구에서 학령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수용태도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장애학생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별 수용태도는 모든 영역에서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초등학생의 학년 간 비교에서는 6학년이 인지적, 정서·행동적, 학습적 수용태도 영역에서 모두 4, 5학년보다 더 장애학생에 대해 부정적 수용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연(2002)이 장애우 통합에 대해 4, 5, 6학년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5, 6학년 학생들은 4학년 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학년이 낮을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곽지영(1996)의 연구, 일반학급아동의 장애우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저학년일수록 수용태도가 높아진다고 말한 이양섭(199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통합경험이 있는 일반아동의 학년에 따른 장애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두 영역 모두 6학년에서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미숙(200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중학생에서 학년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중1, 2학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결과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인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제나 활동 영역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장애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이었으나, 학업 영역에서는 오히려 학년이 높을수록 장애 수용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박영옥(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최숙자(2004)는 통합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교 일반학생의 학년에 따른 수용태도는 생활태도, 학

Table 3. Difference in normal students attitude according to grade

	M(SD)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t p
Cognitive attitudes	2.40(0.75)	2.71(0.70)	15.93 0.0001
Affective-behavioral attitudes	2.78(1.68)	3.07(0.61)	17.33 0.0001
Learning attitudes	2.23(0.80)	2.48(0.76)	8.60 0.0036

Table 4.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ttitude according to grade

	M(SD)		
	Elementary school students	F	P
	4th grade	5th grade	6th grade
Cognitive attitudes	1.78(0.49)	2.44(0.53)	2.93(0.73)
Affective-behavioral attitudes	2.25(0.58)	2.82(0.43)	3.24(0.66)
Learning attitudes	1.54(0.42)	2.27(0.63)	2.82(0.76)
	2.40	0.0001	

Table 5. Differ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 according to grade

	M(SM)		
	Middle school students	t	p
	1st grade	2nd grade	
Cognitive attitudes	2.73(0.72)	2.68(0.66)	2.71 0.5529
Affective-behavioral attitudes	3.07(0.65)	3.06(0.55)	3.07 0.8805
Learning attitudes	2.53(0.83)	2.41(0.65)	2.48 0.1650

습활동, 전체영역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수용, 통계적으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교 일반학생들의 태도에서 3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최국희(2003)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초등학생은 저학년일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인 반면, 중학생은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이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지적 사고가 형성되는 유아동기나 초등학교 시기부터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보다 긍정적일 것임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은 성숙의 효과에 의해 수용태도가 더 긍정적인지 또는 통합경험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른 긍정적 수용태도를 갖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년에 따른 장애우 수용태도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 불일치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3. 일반학생-학부모 간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자녀 학급에 장애학생 여부에 따른 부모의 장애학생 수용태도는 Table 6과 같다. 즉, 자녀학급에 장애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와 모르고 있는 부모사이에서는 두 가지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서·행동적 영역에서 자녀 학급에 장애학생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부모집단이 존재를 인지하는 부모집단보다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학습적 영역에서 장애학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부모집단의 수용태도 평균이 2.58로 나타나 자녀모르고 있는 부모집단에서 장애학생의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학생집단과 학부모집단 간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 비교는 Table 7과 같다. 그 결과 정

서·행동적 수용태도와 학습적 수용태도 두 가지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행동적 수용태도에서는 학생집단의 평균이 2.98, 부모집단의 평균이 2.47로 나타나 학생집단이 부모집단보다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이었으며, 학습적 수용태도에서는 학생집단이 2.55, 부모집단이 2.40으로 나타나 학부모집단이 학생집단보다 장애학생에 대해 더 부정적 수용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일반학생-학부모 간 장애학생 수용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인지적 영역 중 ‘장애학생과 함께 놀 수 있다’, ‘내 아이가 장애학생과 노는 것이 쉽다’의 문항에서 일반학생의 경우 3.03, 학부모집단은 3.48로 나타나 일반학생보다 학부모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정서·행동적 영역인 ‘장애학생(의 어머니)를 우리 집에 초대 하겠다’, ‘장애학생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괜찮다’ 문항에서는 학부모의 장애학생 수용태도 평균이 각각 2.34, 3.26 일반학생은 3.69, 3.30으로 나타나 일반학생집단의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

Table 6. Differences in parents' attitudes by recognition of the presence of a student with disabilities in their children's classroom

	M(SD)	Existence	Nonexistence	t	p
Cognitive attitudes	2.37(0.55)	2.46(0.57)	3.44	0.0648	
Affective-behavioral attitudes	2.43(0.53)	2.54(0.49)	7.50	0.0066	
Learning attitudes	2.50(0.60)	2.58(0.55)	4.12	0.0435	

Table 7. Difference in attitude according to normal students-their' parent

	M(SD)	Normal students	Normal students' parents	t	p
Cognitive attitudes	2.62(0.73)	2.56(0.36)	0.36	0.5465	
Affective-behavioral attitudes	2.98(0.64)	2.47(0.28)	119.61	0.0001	
Learning attitudes	2.55(0.78)	2.40(0.51)	6.80	0.0093	

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생과 학부모집단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영역별로 알아보고 일반학생-학부모 간 수용태도를 비교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는 3가지 하위영역 즉 인지적 영역, 정서·행동적 영역, 학습적 영역 총 21문항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으며 성별과 학년에 따른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의 수용태도, 학생-부모 간 비교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는 중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생은 6학년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학생의 학부모집단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알아본 결과, 자녀학급에 장애학생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모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학생-학부모 간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살펴본 결과, 정서·행동적 수용태도에서는 일반학생집단이 학부모집단보다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인 반면, 학습적 수용태도에서는 부모집단이 학생집단보다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있어 일반학생과 학부모간의 수용태도 영역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의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후속연구와 교육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학년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장애학생 수용에 대한 교육이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한 중재 전략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줌으로써 바람직한 통

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학생의 학부모가 자녀학급에 장애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긍정적임을 볼 때 통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학부모를 위한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장애학생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은 전남 S시 및 Y시에 위치한 몇 개의 학교만을 표집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 일반화에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학부모집단의 경우 설문지를 학생 편으로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직접설문에 응하였는가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셋째, 표집대상 선정 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였고, 경도장애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 장영원(2005) 통합학교운영에서의 비장애인의 장애아 수용태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지영(1996) 장애학생에 대한 또래집단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8(1).
- 김광웅(1990) 정신지체 유아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2000) 초등학교 통합교육에 따른 일반학습 아동의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수용태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태(1998) 사회성측정 지위로 본 특수 학급 아동의 또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애·정대영·박희찬(1996)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용주(1988)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태도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2002) 장애아동통합에 대한 일반초등학생의 태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삼(2000) 통합교육 경험, 학년, 성별에 따른 일반학생의 장애 학생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1996)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지각차이 비교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윤석(1996) 통합교육관련 교사변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진(2001) 초등학교 교사의 특수아동에 대한 태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옥(2005) 통합교육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장애수용태도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명(2001)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장애아, 일반아부모간의 인식비교.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순(2003)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수용태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2003) 초등학교 통합교육 효과에 대한 초등학교 장애 아동 및 일반아동 부모태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희(2001) 통합교육효과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희(2005) 유아특성 및 통합교육상황에 따른 일반유아의 장애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특수아동교육연구학회*, 7(1), 71-290.
- 윤혜경(1991).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일반아동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태(1981) 장애자 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미옥(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장애와 심리적 구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양섭(1995)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학급 아동의 태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1995) 정신지체 또래에 대한 일반아동의 수용태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숙(2000) 장애우 통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비교.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연(2006) 통합교육 환경에서 분리교육 환경으로 전환된 장애학생의 실태 및 원인 배경에 관한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선화(1992)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국희(2003)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자(2004) 통합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교 일반학생의 수용태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자(2002) 일반학급 아동의 특수아동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규(2004) 설문방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학급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8(4), 413-431.
- 한국통합교육학회(2005) 통합교육: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입문. *학지사*.
- Siperstein GN, Budoff M(1980) Effects of the labels mentally retarded and retard on social acceptability of MR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4.
- Esposito BG, Peach WJ (1983) Changing attitudes of preschool children toward handicapped Peers. *Exceptional Children*, 49, 316-363.
- Kaufman JM, Agard JA, Semmel MI (1985) Mainstreaming, and the Remaking of American Society, 66, 762-796.
- Madden N, Slavin R(1983) Mainstreaming students with mild academic handicaps: Academic and social outcom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3, 519-569.
- Odom SL, McEvoy MA(1990) Mainstreaming at the preschool level: Potential barriers and tasks for the field.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 48-61.
- Peltier GL(1997) The effect of effect of inclusion on non-disabled children: a review of the research. *Contemporary Education*. 68.
- Shea, Thomas M.(1994) Learners with disabilities :a social systems perspective of special education, Madison, Wis. : Brown & Benchmark, c1.
- Truesdell LA, Abramson T(1992) Academic behavior and grade of mainstreamed student with mild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58, 392-398.
- Yanito, Trenly(1987) Teacher Attitudes toward Mainstreaming: A Literature Review. Utah.